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만공 스님(4)

만공, 일 없이 한가한 도인에게 왜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고?
진성, 한잔 더 잡수십시오

어느 날 만공(滿空; 1871~1946) 스님이 한가로이 앉아있을 때, 진성 시자가 차(茶)를 달여 가지고 왔다.

스님이 말했다.

"아무 일도 않고 한가로이 앉아있는 내게(我今不勞而閑坐), 왜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고?"시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노스님! 한 잔 더 잡수십시오" 하였다.

스님이 "허! 허?" 하고 웃었다. 이 문답은 유명한 조주 선사의 '끽다거(喫茶去: 차 드세요)' 공안의 한국판이라 할만하다. <조주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등장한다. 한 수좌가 절에 도착하자, 조주 선사가 물었다.

"여기에 처음 왔는가, 아니면 온 적이 있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차나 마시게."

조주 스님이 또 다른 수좌에게 같은 질문을 하니, 그가 "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조주 선사는 또 "차나 들게" 라고 하였다.

뒤에 원주(院主) 스님이 의심이 나서 조주 스님께 물었다.

"왜 온 적이 있다 해도 차를 마시라 하고, 온 적이 없다 해도 차를 마시라고 했습니까?"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

이처럼 조주 선사는 세 명의 스님에게 똑같이 "차나 들게나"라고 말했다. 이것은 선사가 상대적인 분별의 식을 끊은 깨달음의 절대경지에서, 이리 저리 찾고 구하는 치구심(馳驅心)을 내려놓도록 이끄는 법문이다.

이 절, 저 절 찾아다니며 불법(佛法)이 무엇이고, 선(禪)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 헤매는 망상과 집착을 맑은 찻물로 씻는 시원한 화두인 것이다.

만공 스님이 차를 마시면서, '끽다거' 공안을 화제(話題)로 제자의 기량을 시험하자, 진성 시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잔 더 잡수십시오"라고 응대한다.

'끽다거' 화두에 대해 요리조리 알음알이를 내어 대답하는 순간, 한 잔의 차는 어느 순간 독주(毒酒)가 되고 만다. 물론 조주 스님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흉내 낸다면 더욱 어긋나고 만다. 찻자리에서 한 잔의 차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음 없이 차를 올리고 받는 무심(無心)의 거래(去來)가 아니고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응대가 즉각적으로(생각의 개입 없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끽다거' 화두로 제자 기량 시험
주고 받음이 없는 '無心'의 거래

이 문답에는 '끽다거' 공안과 함께 '일없이 한가한 도인(無事閑道人)'의 경지가 어떤 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숨어있다. 만공 스님은 스스로 '일도 없이 한가로이 앉아있는(不勞而閑坐)' 무사인(無事人)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행여나 말 따라 가서 '빈둥빈둥 노는 노인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임제 선사가, "구하는 마음을 쉬면 바로 무사(無事)"라고 했듯이, '밖을 향해 구하는 마음(치구심)'이 없는 것을 '무사'라고 한다.

'무사'는 적정의 경지이며 본래 진실한 자기(眞己)로 돌아가서 평안한 마음상태인 것이다. 사실, '치구심'을 없애는 것이 부처(본래 순수한 참 자기)를 자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임제 선사는 "무사(無事)가 바로 귀인이다. 밖으로 구하지 말라. 다만 조작하지만 말라"(임제록)고 했던 것이다. 깨달음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최후의 갈망'마저 쉬는 것이 참된 수행이 아닐까.

김성우 객원기자

'다라니 독송' 울림 선원 가득히…

일산 덕양선원, 천수대비주 10만독 성취 기념법회

티베트에서 스님으로부터 신도들까지 염송하는 진언(眞言:다라니)은 단연 '옴마니반메훔'이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묘장구대다라니(천수대비주=대비주=천수다라니=대다라니)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조석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의 핵심 진언인 천수대비주를 외우지 않는 사찰은 거의 없다. 하지만, 천수대비주를 중심으로 용맹정진하고 그 수행의 공덕을 사부대중이 함께 누리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성철 스님이 주석했던 백련암을 중심으로 능엄주 수행도량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산 덕양선원(선원장 법상)이 천수대비주 전문수행도량으로 거듭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 스님이 자신의 수행담을 소개하며 다라니 정진을 격려했다.

7월 1일, 마침 덕양선원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10만독 성취 기념법회'가 열렸다. 3백여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78만독을 성취한 원명화(63 · 서울 월곡동) 보살을 비롯 대도화, 자광명, 여진, 지심행, 선정화, 여경, 수정심, 박성준, 본자행 불자 등 10명은 감격 어린 표정으로 그간의 구도여정을 돌아보고 쉼 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혜연 황해상(47 · 육군 대령) 거사는 불교계 최초로 419자로 된 대다라니 글자 하나하나에 6바라밀행을 발원하는 시를 붙여 '신묘장구대다라니 행시(行詩)'를 발표했다.

'나모라다나다라'에서 '나는 이제껏 무엇을 바라며 살았는가?'로 시작해, '사바하'의 '하하하 허허허 호젓하게 웃는 날까지'에 이르는 16쪽에 달하는 행시는 진언수행자의 마음가짐과 깨달음을 향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살행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날 법회에서 법문을 한 법현 스님(열린선원 원장)은 "주력 수행의 결과는 정확하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하며, 구하는 마음이 없이 무위법(無爲法)으로 염송해야 성취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태고보우 스님은 염불하는 주인공을 찾으라고 했으며, 신라출신의 무상 선사는 인성염불(引聲念佛:길고 느리게 '나무아미타불'을 창(唱)하며 염(念)하는 염불법)로 염불선을 가르쳤다"면서 대다라니 수행을 통해 참 나를 깨달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법안 스님(대성사 주지)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백내장에 걸려 실명했다가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통해 광명을 되찾은 당신의 수행담을 소개하면서, "다라니가 어디서 나왔는가? 누가 천수대비주를 외우는고? 하고 의문을 품으면 마음부처가 드러난다"며 정진을 격려했다.

덕양선원은 올해 11주년을 맞았지만, 신도들이 공식적인 정진을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 20일부터 시작한 100일 기도 때였다. 이때부터 1000일 기도를 새로 정하고, 그 과정에 다라니 100일 기도를 6차례나 진행했다. 100일 기도 중에는 7~10일간 하루에 1000독을 하는 가행정진을 수없이 했고, 매주 금요일은 어김없이 철야정진을 했다. 이런 용맹정진이 이어지면서 신도들은 적게는 10만독에서부터 30~40만독, 78만독에 이르기까지 대다라니 정근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도들은 <천수경>과 다라니 독송 수행기를 엮은 책을 세 차례나 발행해 법보시하는 등 수행과 생활 양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마음이 맑고 밝아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진 신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들었으며, 수행자 자신과 가족이 함께 행복해졌다. 남모르는 가피를 입어 질병이 낫거나, 고난에서 벗어난 일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더구나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공주교도소나 군법당을 후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신도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참된 수행과 보살행을 늘 실천하게 된 점이다. 대다라니 16만독을 성취한 지심행(57 · 고양시 행신동) 보살은 "다라니 수행을 하면서 분별심이 적어지고 늘 긍정적이 되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생활이 저절로 행복해졌다"면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어서 참선과 둘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비주 수행도량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덕양선원에는 날마다 다라니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 대다라니 1000편 독송 철야정진에는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동참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대비주 수행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불자들은 선원장 법상 스님의 자상한 개인 지도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031)907-7172

인·터·뷰 - 법상 스님

천수대비주 수행 과정 통해 本性 잠재력 일깨울 수 있어

"대비주를 수행하면 방하착(放下着: 내려놓기)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깊이 집중하여 삼매에 들어가면 안팎이 공(空)한 가운데 신묘한 본래 자리가 바로 드러납니다."

참선, 위빠사나, 아봐타 등을 두루 닦은 덕양선원 선원장 법상 스님(사진)은 "수행을 통해 하나를 통달하면 만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스님은 "실천수행이 부족한 한국 불교의 풍토에서 한 가지 수행방편을 우직하게 닦아서 직접 삼매를 체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교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참이 없는 공부는 마른 지혜만 키우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대비주와 인연이 닿은 것은 지난 94년, 서울 천중사에서 대비주 108편씩 100일기도를 하면서 기도 동참자들이 함께 가피를 체험하면서 부터다. 99년 참선 중에 5온(蘊)이 화합한 '나'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다는 '아공(我空)'을 체험한 스님은 2004년부터 하루 5시간 40분 꼬박 목탁을 치며 용맹정진해, 대비주 수행의 묘미를 터득했다. 스님은 "창조력, 삼매력, 자비심, 용맹심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는 대비주 수행을 통해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 본성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일깨우자"고 말한다.

김성우 객원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축서사 철야 참선법화**=봉화 축서사는 7월 21일(매월 셋째 토) 철야참선법회를 연다. 선원장 무여 스님이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직접 법문하며, 좌선 실수(實修)를 지도 · 점검한다. (054)672-7579

●**정토선 염불 철야정진**=음성 용운사는 7월 14, 28일 주지 선용 스님의 지도로 정토선(淨土禪) 염불 철야정진을 연다.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은 자율철야정진. (043)878-3366

●**1주일 철야정진**=보림회는 7월 26일(목) 오후 8시부터 8월 1일(수) 오전 7시까지 서울 보림사에서 1주일 철야정진법회를 연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육성 법문과 선어록을 교재로 보림사 회주 묵산 스님이 좌선을 지도한다. (017)332-4096

●**금강경 및 참선법화**=김천 인적사는 7월 28일(매월 넷째 토) 오후 8시에 철야참선법회를,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강경 법회를 연다. (054)431-1192

화제의염주
천연 백수정 108 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특별증정 손목단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3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공양구로 사용한다.
고대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 사업을 하고 계신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분, 자녀문제로 고민하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 신광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정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 선물로 일반인에게는 천연백수정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향로 출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際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동물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뜻과 후손들은 하얀연꽃으로 신위를 영접한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신광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변질되지 않게 베르린 왁시 까지 처리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부와 명예를 얻게 일곱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 있어 가정의 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날 택배로 받아 제사때 사용할 수 있다.
가격:98,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규격:높이14cm, 폭18cm, 무게1kg

평생부자지갑
여성용 銀나노 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남성용 金나노중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도저히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은 불경 신묘장구다라니경에 상세히 기록된다. 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과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본 부처님께서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흡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뜻으로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에서 돈과 복이 들어오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법구 보병을 넣었으며 지갑내부 뒷면에는 앞으로 사는동안 막힘없이 모든일들이 성공되게 하는 비방인 부처님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까지 처리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다. 출시 8개월 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묘하게 회복되고 안되던 장사가 잘되고 가정이 풍요로워 지는등 모든 가지가지 문제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된다는 입소문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갑이다. 불광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 되게 100일 특별새벽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